나 예수가 섭리사 모두에게 사명을 주노라

작성일: 2011. 7. 29. (금)
작성자: 주사랑빛

[관리하던 생명의 부모님이 제게 이단이라 하며
계속 협박을 해 왔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평생을 억울한 핍박 속에 살아오신 선생님을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절대 굽히지 않으시고
더욱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니 힘이 났습니다.
더욱 강한 마음을 가지며
이럴수록 더 외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아,
선생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지고,
바람 불면 배가 더 빨리 나아가듯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선생의 마음이다.
네 마음도 그러하다 고백하지 않느냐.
환난, 핍박의 두려움이
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더냐.
너의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리 고백한 것이냐?

(“이 역사에 대한 확신성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맞음을 저는 몸소 느꼈고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 선생의 삶이 역사의 증표이다.
나 예수가 살아 역사함을 보여 주기 위해
선생의 삶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증거를 듣지도 않고
스스로 헛된 판결을 내리려 하니
거짓 판결자들이 아니냐.
옳은 법정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 역사를 확실히 깨달은 자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지.

누명 쓴 자의 삶을 보아 온 자가
증언하는 말이 맞느냐?
그를 보아 오지 않은 자가
증언하는 말이 맞느냐?

거름 하나를 고를 때에도
밭에 대해 아는 자가 선택하는 거름이 맞느냐?
밭을 처음 본 자가 주장하는 말이 맞느냐?

성약역사는 내가 직접 기르고 키운 선생 통해
재림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장 온전한 신부로
변화시켜 구원하는 역사이다.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역사는
성약역사가 결코 될 수 없다.
나 예수의 이 말조차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이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이냐?
누구를 위한 교리이냐?

역사에 대한 절대 믿음은 자부심을 낳는다.
자부심의 힘에 의해

너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혼동되지 않는다.
내 사랑아,
선생은 이러한 자부심의 힘으로
섭리역사를 이끌어 왔으며
많은 생명들에게 외쳐 왔다.
억울하냐. 속상하냐.
그러면 외쳐라.
네 마음 속 자부심의 힘,
에너지를 묻어 두지 말고
외쳐 생명의 배가를 만들어라.
외쳐, 신부 만드는 일이
너희가 해야 할 필연적인 일이다.
네 억울함과 한이 풀어지는 일이다.
선생의 모든 누명이 벗겨지는 일이다.
외쳐라.
내 마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다.
세상을 이겨라. 지지 말아라.
이는 세상의 잣대인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얼마나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싸움이다.
승리하라!
외쳐라!

더 세상의 땅을 정복해 버려라!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외치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가 승리하듯이
승리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땅속에 묻혀 있던
천 년된 도자기도
세상에 꺼내어 사람들 앞에
내 놓아야 빛이 난다.
이와 같이, 세상 땅속에
이 복음을 묻어만 놓지 말고
세상 많은 자들 앞에
내 놓아야 빛이 난다.
가장 먼저 세상에 당당히
내어 놓은 자가 선생이구나.
선생처럼 내어 놓아라.
이 도자기(시대 복음)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 놓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는 삼위가 직접 만든 도자기이니
자부심을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최고 가치의
온전한 복음의 도자기이다.
내어 놓아라.

삼위가 직접 흙 빚어 만들고
선생이 발굴해 낸 도자기 아니냐.
다른 자가 비슷한 그릇 하나 가져다 놓고
시대 복음의 도자기라 해도 속지 말아라.
나 예수는 오직 선생에게만
진짜 도자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다른 땅을 백 년, 천 년 파헤쳐도 나오지 않는다.
선생 뒤를 따르는 자들만
도자기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기품에 놀란다.
다른 자는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다
온전히 다 보지 못하니
‘별것 아니네.’ 하고
실망하며 돌아선다.
알겠느냐.
무엇이 부끄러우냐.

아무리 덩치 큰 어른이라도
총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 앞에선 항복한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성장해 온 섭리역사는
연수로 보면,
기성에 비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강력한 말씀의 무기가 있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음이다.

혹여 한 어른이 역시 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놀라지 말라.
총알 없는 총이니 가지고 있다가
소용없으니 끝내 지겨워 버린다.
너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 아니냐.
두려워말고 나가서 승리하라.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
A라는 자가 비옥한 땅을 사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나무를 기른다.
B라는 자가 황폐한 땅을 사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나무를 기른다.
A와 B가 기르는 나무가 같은 나무이겠느냐?
이미 땅 자체가 다르지 않냐.
B라는 자가 A라는 자에게 와서 함께 나무를 기르고,
일구어야 같은 나무를 기르는 것이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성약역사의 땅에서 부지런히
씨 뿌리고 거름 주며, 아름드리 거목을 길러 내야지.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여라.

자, 내 사랑아.
선생이 A와 같은 자이구나.
그와 함께 씨 뿌리고 거름 주며
거목을 길러 내라.
그리할 때, 너는 거목 그늘 아래
시원히 휴식할 수 있을 것이다.
B라는 자와 함께 해 보아라.
거목이 무엇이냐.
묘목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
찍어 불태우기만 하지.
너희는 A라는 자와 같은, 선생과 함께
비옥한 땅에서 같은 몸부림으로,
같이 묘목을 길러 내니
참으로 크나큰 자부심이다.
이제 나와 같이 외치고 사랑하자.

섭리사 나의 신부들,
이 시간 너희 모두에게 사명을 주노라.
외치는 사명이다.
시대를 외쳐라.
담대히 전하라.
나 예수가 보낸 자를 증거하라.

생명들 모두 그의 삶 속에 녹아날 것이다.

사랑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를 담대히 외치며
늘 삼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니라.